

# 少陽人處方に 내재되어 있는 東武公의 陰陽觀

許 萬 會\*

## I. 序 論

現今에 이르기까지 格致藥과 東醫壽世保元 속에서 수많은 研究家들이 東武公의 陰陽觀, 哲學觀, 生理·病理觀에 대하여 論하여왔다.

그러나 方劑에 대한 分析은 시도된 바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아 金번 著者는 東武公 자신이 創製, 創方 한 諸處方中 少陽人 處方の 陰陽升降作用과 藥材의 歸經, 屬性, 主治를 分析하여 此를 少陽人의 形態學的 圖式化 圖表와 연계시켜 각 處方과 藥物속에 內包되어있는 東武公의 陰陽觀에 대하여 考察해 보고자 한다.

## II. 分析 資料

### 1. 分析 處方

- 1) 荊防敗毒散
- 2) 荊防導赤散
- 3) 荊防瀉白散
- 4) 車前子湯

- 5) 滑石苦麥湯
- 6) 荊防地黃湯
- 7) 獨活地黃湯
- 8) 熟地黃苦麥湯
- 9) 十二味地黃湯
- 10) 涼膈散火湯
- 11) 地黃白虎湯
- 12) 陽毒白虎湯

### 2. 12種 處方에 들어가 있는 30種 藥材의 歸經, 屬性, 主治.

- |         |   |
|---------|---|
| 2-1 羌活  | 入 膀胱 兼 入 肝, 腎, 小腸經.<br>屬陽 性升.<br>氣雄而勝陽 以 行於上焦 治 肝經伏<br>風 及 膀胱經邪 |
| 2-2 苦麥  | 入 心, 脾, 胃<br>屬陰 性降<br>燥濕升熱 建腸胃 沈降入腎 消癰解<br>毒                    |
| 2-3 瓜蒌仁 | 入 肺, 胃, 大腸<br>屬陰 性降   |

\* 경희대학교 사상의학과 졸업, 현 제원한의원 원장

- 能清上焦之火 痰氣下降 祛痰止嗽  
蕩滌胸中鬱熱
- 2-4 枸杞子 入 肝, 腎  
屬陰中之陽 性可升可降  
滋肝益腎
- 2-5 獨活 入 腎經  
屬陽 性升, 然 氣細而浸升 以 行於  
下焦  
散腎經伏風
- 2-6 牡丹皮 入 心, 肝, 腎  
屬陰中之微陽 性可升可降  
往來於心腎之間 以 清伏火 涼血熱  
而 通血脈
- 2-7 茯苓 白茯苓 入 心, 肺, 脾, 胃, 腎  
屬陽 性浮而升  
瀉肺熱 下通膀胱 以 補脾寧心  
赤茯苓 入 心, 小腸  
屬陽 性浮而升  
瀉心小腸膀胱濕熱 以 清利濕熱
- 2-8 木通 入 心, 小腸, 腎, 膀胱  
屬陽中之陰 性降  
上通心包 降心火 清肺熱 化津液  
下通大小腸膀胱 導諸濕熱 由小便出
- 2-9 薄荷 入 心, 心包, 肺, 肝  
屬陽 性浮而升  
宣滯解鬱 清利頭目 解上焦之火
- 2-10 防風 入 肝, 大腸, 三焦 兼入 肺, 膀胱.  
屬陽 性升  
搜肝瀉肺 驅風, 解表, 發汗 治 上  
焦風邪(風藥中潤濟)
- 2-11 覆盆子 入 肝, 腎  
屬陰中之陽 性可升可降  
益腎固精 續絕陽而升陽
- 2-12 山茱萸 入 肝, 腎
- 屬陽中之陰 性降  
固精補腎助陽 以收耗散之原陽於陰  
陽之宅
- 2-13 生地黄 入 心, 肝, 膽, 脾胃, 腎  
屬陰 性大寒  
涼血瀉火清金 平心脾血之上逆(平諸  
血易) 解鬱火 而 平定胸膈之火
- 2-14 石膏 入 胃經 兼入 肺, 三焦 屬陰中之陽  
性可升可降 體重 質堅  
寒能清熱降火, 辛能發汗解肌, 甘能  
緩脾, 內外兼施, 生津止渴
- 2-15 熟地黄 入 心, 肝, 腎  
屬陰中之陽 性降  
滋腎水(養血 填精 補髓)而造陰陽之  
宅
- 2-16 柴胡 入 肝膽, 心包, 三焦.  
屬陰中之陽 性升  
少陽經藥 引胃氣上升 發表和裏 退  
熱升陽
- 2-17 連翹 入 肺膽, 大腸, 三焦 兼入 心包  
屬陽(一云 陰中之陽) 性可升可降  
諸濕熱而解鬱 解一切上焦氣血之凝  
結
- 2-18 忍冬藤 入肺肝2經  
屬陽中之陰 性平  
解表散邪 解上焦壅結之熱
- 2-19 豬 入 腎膀胱2經  
屬陽中之陰 性升而微降  
利濕行水
- 2-20 前胡 入 肺, 三焦 兼入 脾胃, 大腸 肝  
膀胱  
屬陽中之陰 性降  
肺熱 降氣和痰 以 治咳嗽
- 2-21 地骨皮 入 肺, 肝, 腎, 三焦

- 屬陰 性可升可降  
降 肺中伏火 諸肝腎虛熱 而 補陰降  
火
- 2-22 知母 入 肺胃腎3經  
屬陰 性沈而降  
瀉肺火 胃火 治腎膀胱火 療命門相  
火 而 瀉火滋水
- 2-23 車前子 入腎經 兼入 肝, 小腸  
屬陰 性降  
肺肝風熱 滲膀胱濕熱 而 固精益陰
- 2-24 梔子 入 心肺胃3經 屬陽中之陰 性平  
瀉心肺之邪 四肢 屈曲下行 由小便出
- 2-25 澤瀉 入 腎, 膀胱2經  
屬陰 性降  
滲濕利竅 利水瀉火(邪下焦濕熱)而  
上升清氣
- 2-26 荊芥 入 肝膽胃肺4經  
屬陽 性浮而升  
發表祛風利血
- 2-27 玄蔘 入 腎經  
屬陰 性可升可降  
腎經君藥 以 壯水制火 散無根浮游  
之火
- 2-28 滑石 入膀胱經 兼入 心, 胃, 大小腸  
屬陰(一云 陽中之陰) 性沈中下降  
上 肺水之和原 下走膀胱 而 通利下  
竅
- 2-29 黃連(川) 入 心經 兼入 肝膽脾胃大腸  
屬陰中之陽 性可升可降  
瀉心火 鎮肝涼血
- 2-30 黃柏 入 腎膀胱2經  
屬陰 性沈降  
瀉膀胱相火 諸濕 血 療下焦虛

### Ⅲ. 本 論

소양인 처방에서도 병증분류와 동일하게 表病證 처방을 少陽 傷風證 처방과 亡陰證처방으로 분류하고, 裡病證 처방은 胸膈熱證 처방과 陰虛午熱證 처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고찰에서는 少陽傷風證 처방으로 荊防敗毒散 荊防導赤散 荊防瀉白散을, 亡陰證 처방으로는 車前子湯 滑石苦蔘湯 荊防地黃湯을, 胸膈熱症 처방으로 涼膈散火湯(상소), 裡熱便閉症 처방으로 地黃白虎湯 陽毒白虎湯을, 陰虛午熱證 처방으로 熟地黃苦蔘湯(하소) 獨活地黃湯 十二味地黃湯을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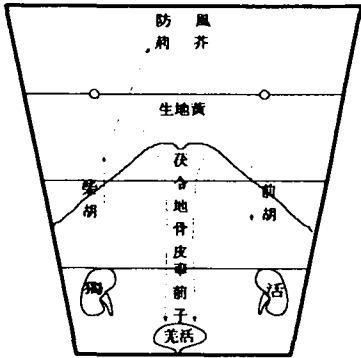
소양인 脾受寒 表寒病證에서는 腎局陰氣가 熱邪에 의해서 所陷되고, 脾局陰機는 熱邪에 의해서 所壅되어 凝聚腎間 膠固囚滯之病이 발생한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비국음기가 신국음기 쪽으로 하강할 수 있게하는 表陰降氣法을 택해야하고, 반면 少陽人 胃受熱 裡熱病證에서는 裡陽上升法을 택해야한다. 다음 처방들에서 어떠한 약재를 사용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表陰降氣시키고 裡陽上升시키는가 고찰해보기로한다.

#### 1. 荊防敗毒散

主治證은 頭痛·寒熱往來·太陽病·少陽病이며, 藥物은 荊芥, 防風, 柴胡, 前胡, 羌活, 獨活, 生地黃, 赤茯苓, 地骨皮, 車前子 各 1錢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약재의 귀경 속성 주치를 참고하여, 소양인의 형태학적 도식화에 의거, 귀속부위에 연계시키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상초에 荊芥 防風이 배속되어 大清胸膈散風하므로 上焦脾肺의 풍열을 승산 시키고 하초에서는 羌活 獨活로 大補膀胱眞陰하여 腎·膀胱의 풍열을 발산시킨다.



중초에서는 柴胡 前胡가 배속되어 柴胡를 屬陰中之陽으로 상승효과를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전자는 裡陽上升, 후자는 表陰降氣를 각각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生地黄 赤茯苓 地骨皮 車前子の 효능은 다음과 같다.

荊芥 防風의 승산효과에 힘입어 生地黄이 量혈사화 청금하여 혈역을 평하고 흉격지화를 평정시켜 표음강기의 터전을 마련하게 된다.

赤茯苓의 청리습열, 地骨皮의 보음강화, 車前子의 고정익음하는 기운과 중초에서 前胡의 힘을 얻어 폐국에서 비·간국을 거쳐 신국까지 表陰降氣가 원만히 이루어지게 된다.

그와 동시에 열사에 포함된 신국음기는 강활 독활의 대보진음하는 힘과 형개 방풍 생지황으로 터전을 마련해서 전호의 보좌하에 적복령 지골피 차전자가 배려간에 응취된 비국음기를 풀어 하강시킨 표음강기의 힘이 합쳐져, 淸陽上升의 길이 트여 시호로 이어지게 되므로써 表陰과 裡陽의 승강작용을 정상화 시킨다. 고로 동무공은 淸裡熱而降表陰이라고 표현했다.

더 관찰해 보면 흥미있는 현상을 찾아볼수 있다. 즉, 형개 방풍 생지황 적복령 시호등 5종은 皆屬陽이고 전호 지골피 차전자는 皆屬陰, 강활 독활은 屬陽이지만 이 둘은 하초에 위치하여 淸陽上升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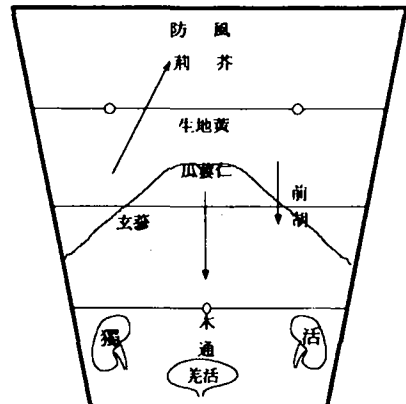
가담하는 고로 전호 지골피 차전자에 함께 포함시킬수 있다. 그렇다면 상초 중하초에 5종, 중량도 각각 합 5돈씩, 상하균형을 적절히 맞추어 表陰降氣 淸陽上升이 상호간 과부족 편차가 생기지 않게 조절된 것으로 보아 이것도 중용사상의 일면이 아닌가 사료된다.

## 2. 荊防導赤散

주치증은 소양두통 결흉 및 흉격변조이다.

약재는 生地黄 3돈 木通2돈 玄蔘 瓜蒌仁 각1돈반 前胡 羌活 獨活 荊芥 防風 각1돈으로 되어있다.

상기 약재의 귀경 속성 주치를 참고하여, 소양인의 형태학적 도식화에 의거, 귀속부위에 연계시키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荊防敗毒散의 경우와 같이, 上焦에 荊芥 防風이 오고 下焦에 羌活 獨活이 왔다는 것은 표음강기의 기전을 발휘 시킨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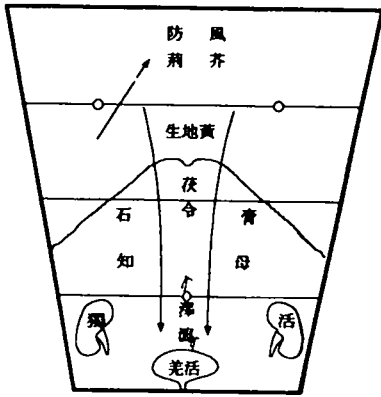
중초부위에 柴胡 대신 玄蔘을 기용하여 청양과 표음의 可升 可降을 보좌 시켰다. 생지황을 3배로 증가시키고 木通2돈 과루인1돈반을 用하여 흉격부위에 심하게 울결된 열사를 大清利 시켜 표음이 하강되도록 하였다.

### 3. 荊防瀉白散

주치증은 두통 방광통 변조 소양증 신열두통설사 망음증이다.

약제는 生地黃 3돈 茯苓 澤瀉 각2돈 石膏 知母 羌活 獨活 荊芥 防風 각1돈으로 되어있다.

상기 약재의 귀경 속성 주치를 참고하여 소양인의 형태학적 도식화에 의거, 귀속부위에 연계시키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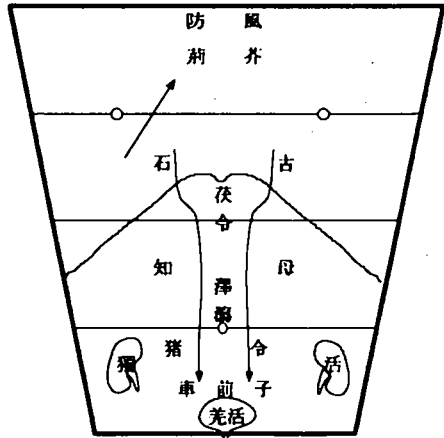
형방패독산과 동일하게, 상초에 형개 방풍, 하초에 강활 독활, 중초부위에 지모 석고를 배치하여 상중하의 균형을 맞추어 표음강기의 터전을 만들어 놓고, 생지황3돈으로 흉격의 화를 대평정하도록 하여 복령으로 청리습열하고 택사로 삼습이규, 이수사화 하면서 上逆背膈된 열사를 解하여 비국음기가 아무런 장애없이 하강할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택사의 상승청기, 강활의 승양하는 기운, 석고의 가승가강하는 힘으로 裡陽上升의 효과는 충분하게 된다.

### 4. 車前子湯

주치증은 망음증 신열설사 양명증 삼양합병 두통 복통증이다.

약제는 복령 택사 각2돈 저령 차전자 각1돈반 지모 석고 강활 독활 형개 방풍 각1돈으로 되어있다.

상기 약재의 귀경 속성 주치를 참고하여 소양인의 형태학적 도식화에 의거, 귀속부위에 연계시키면, 다음과같이 도식화 할수 있다.



상초의 형개 방풍, 하초의 강활 독활, 중초의 지모 석고로써 표음강기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놓고, 생지황대신 복령·택사를 각2돈으로 하고 저령으로 이습행수하고 차전자로 利水道하여 비국음기를 하강시키고, 저령·택사의 승청작용과 강활의 기운이승양하는 기운을 빌어 이양을 상승시킴으로써 신열설사망음을 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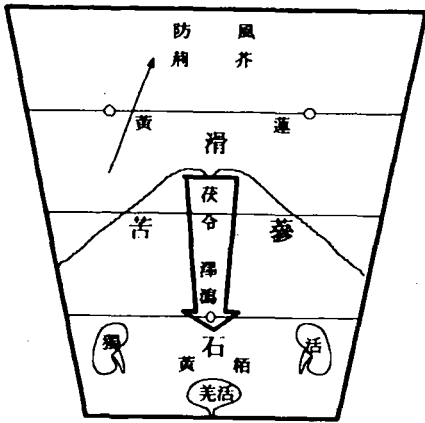
### 5. 滑石苦蓼湯

주치증은 腹痛無泄瀉 亡陰症, 身寒無泄瀉, 2, 3일 腹痛 후 1일 4, 5차 腹痛이 발생할 때이다.

약제는 택사·복령·활석·고삼 각2돈 천황련 황백

형개 방풍 강활 독활 각1돈으로 되어있다.

상기약재의 귀경·속성·주치를 참고하여 소양인의 형태학적 도식화에 의거, 귀속부위에 연계 시키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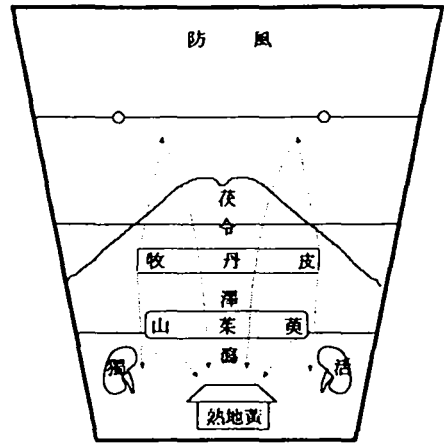
滑石苦參湯 역시 표증처방 이므로 형개·방풍·천황련으로 大清胸膈하고, 강활·독활·황백으로 大補眞陰하고, 淸利濕熱하는 복령과 滲濕利竅하여 利水瀉火하는 택사를 고용하고, 폐에서 방광까지 沈重下降하는 활석과 健腸胃하면서 沈降立身하는 고삼을 기용해서 凝聚腎間 膠固囚滯된 비국음기를 능히 하강할 수 있게해서 실증성 복통·소복급결·경결상태를 治한다.

## 6. 荊防地黃湯

주치증은 亡陰症 身寒泄瀉 浮腫初結 及 調理이다. 약재는 숙지황 산수유 복령 택사 각2돈 차전자 강활 독활 형개 방풍 각1돈으로 되어있다.

상기약재의 귀경·속성·주치를 참고하여 소양인의 형태학적 도식화에 의거, 귀속부위에 연계시키면, 다음과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荊防地黃湯에서는 표증처방의 대강으로서 상초에 형개·방풍, 하초에 강활·독활은 동일하고, 주목해



야 될 것은 복령·택사와 숙지황·산수유를 각2돈씩 동량으로 상하에 배치하고 중간에 차전자를 끼워 넣었다는 것이다. 즉, 表陰降氣와 淸陽上升에서 동등한 비율로 유지되어있는 상황에서 차전자가 폐에서 방광까지 行水洩熱 시키므로 표음강기를 표면적으로는 더 우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 결국 숙지황이 성은 降이지만 택사의 승청기운과 강활의 승양 기운에 힘입어 복령·택사·차전자의 降氣力의 반대급부로 동일한 힘으로 이양상승 할 수가 있다. 또 숙지황이 속음중지양이라는 말은 하에서 상으로 승할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유의하여 살펴볼 것은 주치증의 조리라는 표현이다. 대병후 신체의 균형이 깨어진 것을 조리한다. 또는 형방패독산의 경우처럼 상하균형이 잘 잡혀 조기·순기의 개념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숙지황 2돈의 의미를 다시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육미지황탕, 독활지황탕, 십이미지황탕 숙지황고삼탕등의 숙지황4돈은 신국음기를 직접적으로 보강해서 청양상승의 터전을 곧바로 마련하고자하는 의미이다. 그러나 형방지황탕의 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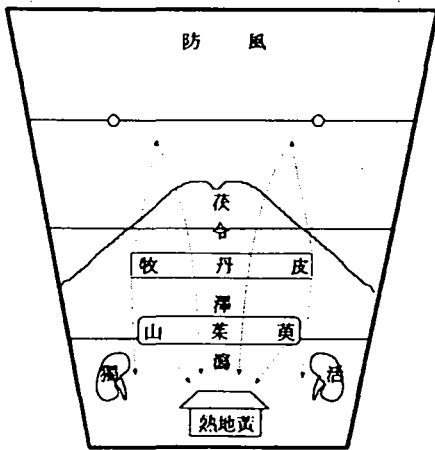
지황2돈은 복령 택사와 산수유 숙지황의 대칭관계를 유지하면서 표음강기에 목적을 둔 것이지, 신국음기를 살리자는 데에 목적을 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 7. 獨活地黃湯

주치증은 食滯滿 陰虛午熱 中風嘔吐 間兩日 不發日 2貼暮服 한40貼 구안와사 초증이다

약제는 숙지황4돈 산수유2돈 복령·택사 각1돈반 목단피 방풍 독활 각1돈으로 되어 있다.

상기약제의 귀경 속성 주치를 참고하여 소양인의 형태학적 도식화에 의거, 귀속부위에 연계시키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獨活地黃湯에서는 육미지황탕의 산약을 방풍 독활로 대응 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이것을 쉽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이열변폐증에 쓰이는 지황백호탕 처방내용을 보면 된다.

즉 생지황 지모 석고 독활 방풍으로 되어 있다. 이를 미루어 보아 알수 있는 것은, 동무공은 表藥 중에서도 裡에 속하는 독활과 방풍을 취용 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독활지황탕은 신국음기를 살려

서 淸陽上升에만 주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表中之表인 형개나 강활은 사족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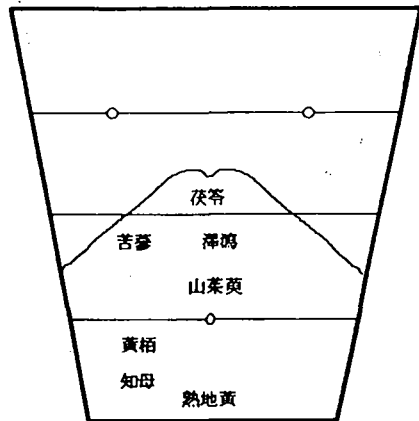
獨活地黃湯의 작용은 복령 택사로 표음강기시키고 산수유 숙지황으로 대보진음해서 신국음기를 살려서 방풍 독활로 상하에서 각각 닦아는 청양상승의 길로 승양시켜 구안와사 식체비만 음허오열 중풍구토 등증을 치하게 된다.

### 8. 熟地黃苦蔘湯

주치증은 下消 胎衣不出이다.

약제는 숙지황4돈 산수유2돈 백복령 택사 각1돈반 지모 황백 고삼 각1돈으로 되어 있다.

상기약제의 귀경·속성·주치를 참고하여 소양인의 형태학적 도식화에 의거, 귀속부위에 연계시키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獨活地黃湯처럼 대보진음하여 신국음기를 살리기 위한 숙지황4돈 산수유2돈을 고용한 것과 복령 택사 각1돈반을 써서 표음강기 시킨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屬陰하고 性沈降한 지모 황백과 屬陰 性降한 고삼을 가해서 大腸局 淸陽上升之氣가 자불쾌족한 상태에서 일월모곤하여 발생한 하소를 치하기 위하여 강음지제가 대거 출동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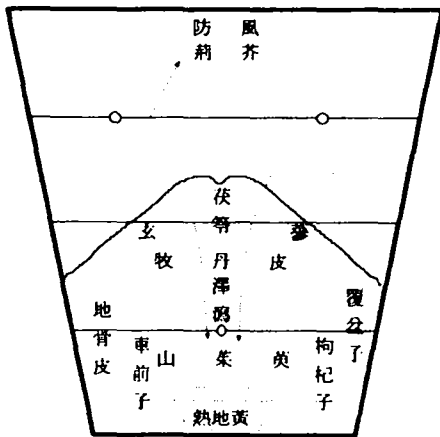
황하에서는 형개 방풍 강활 독활의 상하 조절기능은 사족에 불과하다.

### 9. 十二味地黃湯

주치증은 吐血 陰虛午熱 疝症 痢症 이다.

약재는 숙지황4돈 산수유2돈 백복령 택사 각1돈 반 목단피 지골피 현삼 구기자 복분자 차전자 형개 방풍 각1돈 으로 되어 있다.

상기 약재의 귀경·속성·주치를 참고하여 소양인의 형태학적 도식화에 의거, 귀속부위에 연계시키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할수 있다.



十二味地黃湯에서는 강활 독활이 빠져있다. 그 이유를 고찰해 보면, 숙지황4돈 산수유2돈이 대보진음하고, 복령 택사가 표음강기시키고, 하초에 강활 독활이 들어가야할 자리에 구기자복분자 지골피 차전자가 들어가 2배로 간·신 2경을 집중공략해 주기 때문에 강활 독활이 없어도 충분하며 중하초에서 목단피 현삼이 성이 가승가강하여 중간역할을 담당해 주기 때문에 청양상승의 효과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다. 강활의 승양하는 힘이 없어도 구기자 복분자 지골피등의 가승가강 작용으로 충분히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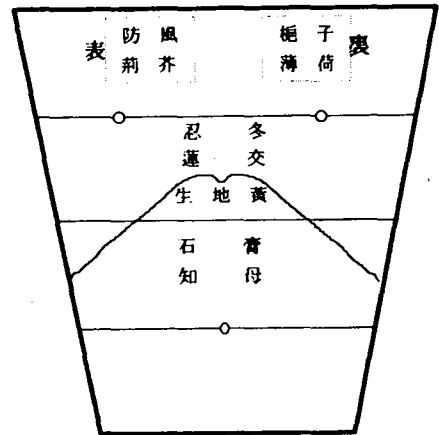
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 10. 涼隔散火湯

주치증은 上消 纏喉風 及 脣腫之輕症이다.

약재는 생지황 인동등 연교 각2돈 치자 박하 지모 석고 형개 방풍 각1돈으로 되어있다.

상기약재의 귀경·속성·주치를 참고하여 소양인의 형태학적 도식화에 의거, 귀속부위에 연계시키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할수 있다.



涼隔散火湯은 裏病證의 胸膈熱症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상초의 표와 리를 모두 다스려야 완벽하게 흉격열증을 치할수 있다는 동무공의 철저성을 엿볼수 있다. 즉, 표증약인 형개 방풍으로 大清胸膈하고, 치자로 心肺의 邪를 하강시켜 소변으로 배출하고, 박하로 상초의 화를 해하여, 표와 리를 모두 평정하면서 다시 인동등으로 上焦壅結之熱을 풀고, 연교로 일체상초기혈의 凝結을 해하고 생지황으로 흉격지화를 평정하고 지모 석고로 강기시키면 표와 리를 겸하여 흉격열증을 철저하게 치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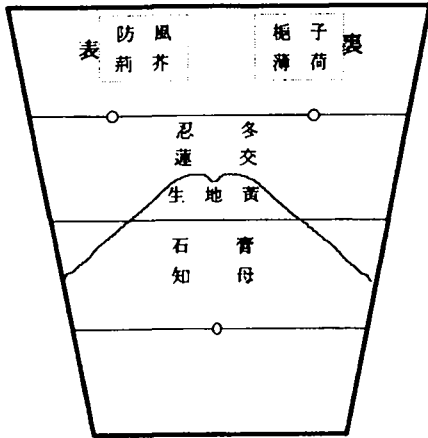


### 11. 地黃白虎湯

주치증은 結胸證語 亡陰證語 太陽似瘧症 陽明症 煩燥 大便不通, 裏熱 大便將澁 勿論表裏 大便不通 當用이며, 揚手躡足 引飲發狂 舌卷動風 亦用 이다.

약재는 석고 5돈 흑1냥 생지황 4돈 지모 2돈 방풍 독활 각1돈이다.

상기 약재의 귀경 속성 주치를 참고하여 소양인의 형태학적 도식화에 의거, 귀속부위에 연계시키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地黃白虎湯은 리양상승의 필요는 전무하기 때문에 表中之裏에 해당하는 防風 獨活을 택하고 리열 변폐 섬어증을 치하기 위하여 石膏 5돈 흑1냥 生地黃 4돈 知母 2돈을 용하고 있다.

양명기육의 열을 제거하는 石膏를 대량으로 증량하고 량혈 사화하는 生地黃4돈을 용하여 리열변폐를 치료하면서 무리한 손상을 염려하여 윤제로 知母 2돈 防風 獨活 각1돈씩을 용하였다.

### 12. 陽毒白虎湯

주치증은 양독발반 변폐 전후풍 순종이경자 이다.

동풍에는 강활 독활 각1돈 시호 현삼 치자 인동 박하 각5분을 가한다.

약재는 석고 5돈 흑1냥 생지황 4돈 지모 2돈 형개 방풍 우방자 각1돈 상기 약재의 귀경 속성 주치를 참고하여 소양인의 형태학적 도식화에 의거, 귀속 부위에 연계시키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陽毒白虎湯과 지황백호탕과의 차이는 독활 방풍 대신에 형개 방풍 우방자로 대용한 것이다.

형개로 발표거풍하고, 방풍은 해표발한 시키고, 우방자는 宣肺氣而 清咽喉하여 양독발반 纏喉風の 표증을 치하고 이열과 변폐증은 석고 지모 생지황으로 치하고자 한 것이다.

## IV. 총괄 및 고찰

형태학적 도식화에 의거해서, 12종 소양인 처방을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 많은 검증을 거쳐야겠지만 횡적으로 나열시킨 처방을 형태학적 도식속에서 평면적으로나마 4초 개념으로 분류해서 각 약재의 귀경 속성 주치에 따라 연계 시켜보면 동무공의 창제처방들이 갖고있는 그 의도속에는 동무공 자신만이 갖고있었던 독창적인 음양관을 발견할수 있다고 사료된다.

### 1. 소양상풍증 3종 처방의 비교

소양상풍증에는 형방패독산 형방도적산 형방사백산등 3종 처방들이 있다.

이 3종 처방의 특징적 기본구조는 상초에 형개 방풍, 하초에 강활 독활을 배치한 것이다.

중초에서의 변화는 형방패독산에서 시호 전호,

형방도적산에서 현삼 전호, 형방사백산에서 지모 석고를 배치한 것이다.

표음강기 시키는 기전은 형방패독산에서 생지황 적복령 지골피 차전자 각1돈, 형방도적산에서 생지황 3돈 과루인 1돈반 목통 2돈, 형방사백산에서는 생지황 3돈 복령 택사 각2돈과 같이 약재의 변화를 피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주치증과 비교하면서 연구해 보기로 한다.

형방패독산의 시호 전호는 승강작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상중하의 균형을 유지시키고 있다. 그 방법은 형개 방풍과 생지황 적복령으로 상초흉격의 화를 평정하여 표음강기 시킬때는 전호가 지골피 차전자와 합세하여 표음강기를 돕고, 강활 독활이 청양상승을 시킬때는 시호가 관여하여 승강작용을 돕게 된다.

그리고 상하가 5대5의 비율로 약종과 중량수에서 대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조기 순기를 하게된다. 따라서 저자는 형방패독산이 소양인 제처방 가운데 조기순기 면에서는 가장 으뜸이라고 사료된다. 고로 四象新編 풍문 조기항에서 육미지황탕을 제시했으나 저자는 형방패독산을 우선으로 열거해야 된다고 사료하는 바이다.

六味地黄湯은 腎局陰氣를 살리는데 目標를 둔 처방으로 風門에서만은 그 유효성을 인정할수도 있겠으나 일반적 조기면에서는 형방패독산의 효가 탁월함을 임상적으로 누시누험 하였다

임상상 荊防敗毒散으로 급·만성 脾臟炎 치료와 肝의 G·O·T 와 G·P·T 수치를 강하시키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腰痛 坐骨神經痛 증상도 快癒시킬 수 있음을 누차 확증하였다.

荊防敗毒散을 단순히 少陽傷風證 처방으로 두통 한열왕래 태양증 少陽證 鼻炎 蓄膿症 등을 主治한다는 정도로만 알아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思料된다.

荊防導赤散은 中上焦 以上에 화가 울결되어 있는 것을 인도해 준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질 수 있는 처방으로 결흉과 흉격변조 소양 두통 등증을 치할 수 있다.

荊芥 防風 각1돈 生地黃 3돈 瓜蒌仁 1돈반으로 胸中鬱熱을 당적해서, 위로는 心·心包·肺에서 아래로는 大·小腸·膀胱까지 습열을 인도하여 소변으로 나가게하는 木通 2돈을 기용하여 玄蓼 1돈반 前胡 1돈의 보좌를 받아 表陰降氣 시키고 羌活 獨活 각1돈으로 清陽上升 시킨다.

荊防導赤散도 역시 上下가 6:5 대 6:5의 중량적 형평을 유지하면서 升降작용을 하고 있다.

이에 茯苓 澤瀉를 가미하여 木通의 효능을 배가할 수있다.

荊防瀉白散은 肺와 腎·膀胱의 관계에서 中上焦 이상의 鬱熱현상 때문에 水之化原인 肺가 燥해지면서 下焦 腎·膀胱의 水氣가 고갈되다시피 되었을 때 사용가능한 처방이다.

生地黃 知母 石膏의 裏證藥을 대폭 기용하여 水之化原을 평하게 하고 茯苓 澤瀉로 삼습이규시키고 知母로 보음강화, 석고로 생진지갈, 강활 독활로 간경복풍 신경복풍을 치해서 수기를 보충 시키고, 택사의 上升清氣 하는 기운과 강활의 升陽氣運으로 清陽上升의 기전이 형성된다.

## 2. 망음증 4종 처방의 비교

신열 두통 설사 망음증에는 형방사백산, 저령차전자탕, 신한 복통 설사 망음증에는 형방지황탕, 활석고삼탕을 용한다.

신열 두통 설사 망음증에는 필히 지모 석고를 용하고 있고 형방사백산에서는 생지황 3돈으로 위군하고, 저령차전자탕에서는 생지황 3돈 대신 저령차전자 각1돈반씩 합이 3돈이 되게하였다. 즉 신열

두통 설사 망음을 상초에 원인이 있는가 하초에 원인이 있는가에 따라 두처방의 용도가 갈라지고 있다. 신한 복통 설사에서는 지모 석고는 불가용이다. 즉 형방지황탕에서는 형개 방풍 각1돈 복령 택사 각2돈이 중상초 이상에서 작용하고, 숙지황 산수유 각2돈 강활 독활 각1돈은 중하초 이하에서 작용하고 중량수도 6 대 6 대칭을 이루면서 차전자가 감초처럼 중간에 끼어 승강의 대세를 결정짓는 역할을 담당하는 폭인데 차전자의 기능은 폐간풍열과 방광습열을 제거하여 고정익을 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숙지황 산수유 각2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국음기 쪽을 지향하면서 표음강기시켜 신한 복통 설사 망음을 치한다.

그러나 활석고삼탕은 복령 택사 활석 고삼을 각2돈씩 사용하므로써 중상·중하초를 담당하여 治腹痛無泄瀉에 주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천황연 황백을 각1돈씩 용한 것은 심·간경의 요인으로 유발된 복통일 가능성이 많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이 망음증 4종 처방들의 공통점은 복령 택사 각2돈 강활 독활 형개 방풍이 각1돈씩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망음증 처방들도 그 근본은 표음강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흉격열증 3종 처방의 비교

양격산화탕은 약재들이 모두 중상초이상에 몰려 있고, 지황백호탕은 약재들이 4초에 골고루 배치되어 있으나 석고 5돈혹1냥으로 위군하여 그 약효의 중심이 하초에 몰려있다.

같은 흉격열증 처방이라해도 양격산화탕은 중상초 이상에서 원인 발생한 흉격열증을 치하는 것이고 지황백호탕은 裏熱便閉와 같은 하초병변에서 기인한 흉격열증을 治하고, 양독백호탕도 지황백호탕에서 독활을 거하고 형개 우방자를 각1돈씩 가미해

서 양독발반을 치하기 위하여 발표의 의미를 부여한 것 뿐이다.

### 4. 음허오열증 3종 처방의 비교

음허오열증 처방에서는 공히 숙지황 4돈 산수유 2돈을 용하여 신국음기를 보강하여 청양상승시키는 데 주력했다. 독활지황탕은 독활 방풍을 육미지황탕의 산약이나 구기자 대신 기용하여 청양상승시키는 과정에서 表中之裏로 약효를 낼수 있도록 조정했다는 탁월한 妙를 발휘했다.

숙지황고삼탕은 독활지황탕과 같은 원리이지만 下消라는 특이한 병증 때문에 독활 방풍과 같은 表中之裏藥은 불필요하고 목단피 대신 고삼을 고용했고 윤신자음 하기 위하여 지모 황백을 첨가했다.

십이미지황탕은 신국음기가 幾絶할 정도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 때문에 청양상승이 거의 불가능한 정도, 또는 청양상승이 미약한 경우 등에 용할수 있도록, 숙지황 4돈 산수유 2돈으로 대보신국음기 하고 지골피 차전자 구기자 복분자를 기용하여 간신2경에 귀경시켜 신국음기를 회복시키는데 총력을 경주했다.

## V. 결 론

소양인 처방 가운데 12종을 선택하여 형태학적 도식화에 의해 도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東武公의 陰陽觀을 확인할 수 있는 몇가지 결론을 얻었다.

1. 소양 상풍증 3종 처방에서 다음과 같은 특이성을 찾아 볼 수 있었다.

1) 荊防敗毒散은 시호 전호, 荊防導赤散은 현삼

전호, 형방사백산은 지모 석고를 중상 중하초에 배치하여 표음 청양의 승강 균형을 조절하도록 했다.

2) 表陰降氣시키는 기전은 荊防敗毒散에서 생지황 적복령 지골피 차전자 (각 1돈), 荊防導赤散에서 생지황(3돈) 과루인(1.5돈) 목통(2돈), 형방사백산에서 생지황(3돈) 복령 택사 (각 2돈)를 사초에 배치하여 비국음기를 신국음기쪽으로 강기하도록 했다.

3) 荊防敗毒散에서 10종의 약재가 상하 5:5의 비율로 약종과 중량수에서 대대 관계를 유지시켜 조기 순기의 탁월성을 발휘시켰다.

4) 荊防導赤散에서는 상하가 6.5:6.5의 중량적 형평을 유지시켜 升降作用을 원활하게 하였다.

## 2. 망음증 4종 처방에서 다음과 같은 특이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1) 荊防瀉白散에서는 생지황 3돈으로 위군하고, 저령차전자탕에서는 저령 차전자 각 1.5돈 씩 합이 3돈 되게 하여 생지황 3돈과 중량수를 동일하게 맞추어 전자는 脾局陰氣병변을 위주로 치하고, 후자는 腎局陰氣병변을 위주로 치료하게 하였다.

2) 荊防地黃湯에서는 중량수를 상하 6:6 대칭을 이루게 하고 차전자를 중간에 끼워 폐에서 방광까지 脾局陰氣가 하강하는 기전으로 전환시켰다.

3) 荊防地黃湯에서 숙지황 2돈의 의미는 腎局陰氣를 직접적으로 보강한다기 보다는 表陰降氣 기전에 의하여 腎局陰氣를 살려 淸陽上升시키는 것으로 숙지황4돈을 사용하여 신국음기를 직접 보강시킨 것과 상이하다.

## 3. 흥격 열증처방에서 다음과 같은 특이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형태학적 도식상 涼隔散火湯은 흥격열증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기위하여 약재들이 모두 중상초이상

에 몰려있고, 地黃白虎湯은 하초의 병변인 裡熱便閉로 말미암아 흥격열증이 오는 것을 치료하기 위해 석고를 5돈 혹 1냥으로 위군하여 그 약효의 중심이 하초에 있게 하였다.

## 4. 음허오열증 3종 처방에서 다음과 같은 특이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1) 숙지황 4돈 산수유 2돈을 기용하여 腎局陰氣를 대보하는데 주력하였다.

2) 獨活地黃湯에서는 表中之裏로 약효를 낼수 있도록 六味地黃湯의 산약이나 구기자대신 表中之裏藥인 독활 방풍을 기용했다.

3) 十二味地黃湯에서 숙지황 4돈 산수유 2돈으로 腎局陰氣를 대보하면서 지골피 차전자 구기자 복분자를 모두 간·신 2경에 귀경시켜 腎局陰氣 회복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므로 간경복풍 신경복풍을 제거하기위한 강활 독활은 사족이 되므로 처방구성에 서 제외됨을 알수 있었다.

## 참 고 문 헌

1. 한동석: 동의수세보원주석, 서울, 성리회출판사, 1967.
2. 이시진: 본초강목, 대북, 문광도서, 민국 71년.
3. 신길구: 신씨본초학, 서울, 수문사, 1988.
4. 이상인: 본초학, 서울, 의약사, 1975.
5. 원지상: 동의사상신편, 서울, 종합의원사, 1974.
6. 박인상: 동의사상요결, 서울, 계축문화사, 1975.
7. 이태호: 동의사상진료의전, 서울, 행림출판사, 1978.